



# 청년극장 영인극장

백두산 편집부

가면

제공: 구국의 소리



# 가면

이번엔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에서 창작한 연극 《가면》의 대본을 간추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  
 민족일보사 기자  
 조용수민족일보사 사장  
 이회창 재판부판사  
 公安검사  
 사형집행관 등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6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쿠데타로 등극한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민족일보라는 한 신문사의 사장이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그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던 재판관들중의 1명은 이회창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41년전으로 돌아가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에게 사형판결을 받고 이슬로 사라진 그 신문사 사장의 이름은 조용수였습니다.

**민족일보기자** : 사장님 이거보세요. 이번달 신문판매 집계자료인데요. 우리 신문이 드디어 주간부수 1위를 차지했네요.

**조용수사장** : 그래? 어디보자구. 야 하하하.

**민족일보기자** : 아, 역시 우리들의 꿈이 틀리지 않았어요.

**조용수사장** : 아무렴. 우리들의 꿈이 바로 민족의 꿈이니까. 조국

의 평화와 통일,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대중들의 목소리는 이젠 대세야. 보라구. 다른 신문들도 점차 우리 신문의 논조를 따라가고 있어.

**민족일보기자** : 네, 4.19의 힘이 정말 대단한가봐요. 이승만정권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이 펼쳐지네요.

**조용수사장** :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젠 우리 국민들의 시대로 돼야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그런 시대가.

**민족일보기자** :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우리 민족일보가 앞장서야 돼요.

**조용수사장** : 역시 관록있는 기자라니까. 음. 하하하.



4.19의 햇살이 조국의 대지를 내리쬐다  
 독재에 눌러왔던 염원이 솟아올라  
 아름다운 꽃, 햇살이 꽃들을 피워준다  
 사랑하는 내 여인이여  
 그대의 머리위 평화의 흰꽃을 엮으리라  
 사랑하는 내 어머니  
 당신의 목에 통일의 파란꽃을 걸어주리라  
 내 미약한 힘이나마 땀이나마 바쳤으니  
 햇살이여 더 따듯이 내리쬐여라  
 꽃들이여 피어라  
 더 활짝 피어라







욕망에 굶주린 군대가 탱크를 앞세우고  
총구를 들이대며 도시를 점령하네  
그들은 혁명이라 소리치고  
사람들은 숨죽여 가슴으로 말한다  
쿠데타! 군사쿠데타!  
그것이 혁명이었던 쿠데타였던  
어쨌든 가장 짧은 계절이 봄이라 했던가  
봄기운 아직 완연한 5월에 스산한 바람불고  
이내 눈보라 휘날려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을 짓밟는다

**공안검사** : 민족일보사 사장 조용수 당신을 체포한다!  
**조용수** : 뭐요?  
**공안검사** : 민족일보는 오늘부터 폐간한다.  
**민족일보기자** : 사장님.



**공안검사** :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회창판사** : 검사, 구형하십시오  
**공안검사** : 범인내역, 반국가단체 고무, 동조범적용,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 형법 30조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조용수** : 재정을 조총련에서 지원받았다는 것은 날조이다.  
**이회창판사** : 증거가 있는가?  
**조용수** : 여기 재정출제자 명단과 명세서가 있으니 보시오.  
**이회창판사** : 됐다.  
**조용수** : 됐다니?  
**이회창판사** : 증거자료가 적합치 않으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요.



재판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호도, 증거자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그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회창판사** : 혁명재판소 심판부 제2부의 민족일보사 조용수사건에 대한 판결은 반국가단체 고무, 동조혐의가 다분히 인정된다. 사형이다.

당시 사장님의 나이는 31세, 젊은 나이였고 또 한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6세의 젊은 판사 이회창씨. 비극의 시대에 만난 두 젊은이는 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군사쿠데타의 희생양이 된 젊은 언론사 사장, 군부의 시녀가 되어 그의 사형을 결정한 젊은 판사.

**민족일보기자** : 이봐요. 어떻게... 어떻게 그따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거죠.  
**이회창판사** : 난 바빠. 판결이 궁금하면 기록을 구해다 읽어봐.  
**민족일보기자** : 변호사 변론도 없이 판결하는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가요?  
**이회창판사** : 우린 변론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판단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권한인 만큼 더이상 시비질하지 말어.  
**민족일보기자** : 이봐요. 당신은 다들 잘 알아왔어요. 같은 젊은이니까 젊은 피가 뛰니까. 헛된 기대였죠. 그렇게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대를 가졌던 것이 어리석었지. 더러운 인간. 출세의 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양심을 가리고 있어. 당장 벗어. 그 가면을 벗고 인간의 양심을 찾으라구. 당신들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는거야.

**민족일보기자** : 사장님.



**조용수사장** : 또 올었나보군.

**민족일보기자** : 사장님.

**조용수사장** : 은혜담 알아. 하지만 지금 할 준비도 해야지.

**민족일보기자** : 이렇게...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나요.

**조용수사장** : 비록 눈은 현실을 보겠지만 꿈은 미래를 보아야 해. 말했었지? 4.19의 햇살이 대지에 꽃을 피우기도 전에 또다시 총칼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가 왔다.

오늘 민족의 꿈을 사랑하는 한 아름다운 인간의 양심을 가진 \*\*\*\* 자들의 손에 의해 죽어간다.

**조용수사장** : 평화와 진보의 비둘기들은 동지마저 빼앗긴채 퍼덕 퍼덕거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가고 있구나.



**이회창판사** : 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판결할 뿐이다.

**조용수사장** : 법관의 판결에서는 양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다. 당신은 후 입판사이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결정에 반대해 법조계를 아예 떠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회창판사** :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다.

**조용수사장** : 당신의 양심을 가리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라. 그 가면의 이름이 출세가 돼있는, 공명심이 돼있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 나는 오늘 죽게되지만 당신의 이름 석자는 판결문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당신이 거짓의 가면을 벗을 그날을 기다릴 것이다. 명심하라. 역사는 나의 죽음과 당신의 판결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도둑을 맞힌 사람은 네활개를 뺀고 잡잘 수 있지만 도둑놈은 잡자 리에서도 손발을 구부리고 죄의식에 잡혀 깊은 잠을 잘 수 없는거죠. 통일애국인사들을 처형하는데 기가 뻘뻘 날친 이회창역적은 어느때 건 겨례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겁니다.



**사형집행관** : 오늘은 당신의 사형집행일. 저것이 당신의 사형집행장이다.

**조용수사장** : 하늘을 보고 싶다. 유리알처럼 맑은 겨울 하늘이... 잠깐이라도 내보내주겠소?

**사형집행관** : 어느 누구도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지 못했어.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조용수사장** : 생을 추억하고 싶다. 폭풍같은 시대를 헤쳐온 나의 생을. 잠깐이라도 시간을 주겠소.

**사형집행관** : 저 밧줄까지의 거리만큼 그 시간밖에 허락되지 않는다.

**조용수사장** : 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가족들에게 편지라도 썼을텐데.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 밧줄까지의 거리뿐.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회창 당신을 또다시 만나게 될줄이야.

**이회창판사** : 사형장에 올라서라! 사형장에 올라서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해.

**조용수사장** : 누구에게라도 상관없겠소.

**이회창판사** : 상관없다.

**조용수사장** : 이회창씨, 이제 나는 당신이 내린 판결에 의해 죽게 된다. 이 판결이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을 거다.



구국의 소리, 2002/10/05-07